

## 연구 논문

#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글쓰기 방식 新 마인드맵의 원리를 활용한 선양 및 관광자원 발굴-

이 학 주\*

1. 머리말
2. 류인석 관련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현황, 유연이미지 창출
3. 류인석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중심어 발굴
4. 중심어를 활용한 개념어와 확대어,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개발
5. 맺음말

## 1. 머리말

본고는 13도의군도총재 柳麟錫(1842~1915)의 의병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에 그 목적을 둔다. 류인석은 일제에 맞서 싸워 자주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사람으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국가독립에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그 공을 잊지 말고, 그를 기리고, 그의 발자취를 따라 선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류인석이

\* 강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라는 이름 석 자는 실천하는 조선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정신의 표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류인석의 의병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발전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스토리텔링해서 대중의 친구로, 국가의 영웅으로, 한국의 롤 모델로, 누구에게나 기억되는 인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의암 류인석 의군도총재가 의병으로 나선 것은 滅私奉公의 선비정신 구현에 있었다.<sup>1)</sup> 이는 당시 廟堂儒가 하지 못한 실천행위를 山林儒가 앞장서서 일제에 맞서 국가의 旗幟를 내세운 것이었다.<sup>2)</sup> 조선조의 선비들은 學行一致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리나 본분인 春秋大義에 입각해서 행하고자 하였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름을 징치하기 위해 옳음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나 행동한 것이다. 이런 기질이 조선의 선비들에게 있었고, 구한말 의병들은 선비정신을 실천하였다.

바로 그런 의병들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류인석이다. 따라서 류인석에 대해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의병들의 선양사업과 연계된다. 류인석과 연계해서는 이미 제천에서 오래전부터 의병이 처음 시작된 고장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류인석이 태어난 고장인 춘천 가정리에서도 기념관을 건립하고 활발한 선양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류인석의 사람됨과 의병행적을 이야기할 때 류인석의 이미지 보다는 위정척사파라는 학통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3)</sup> 물론 사제관계에 따라 스승의 정신을 제자가 이어받아 행동으

1) 이학주, 「류인석 진신영정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문화와 예술』 18, 송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6.3, 237쪽.

2) 위의 논문, 224쪽.

3) 이창식·최명환, 「화서학과 학맥의 의병유산자원과 문화콘텐츠」, 『의암학연구』 6, 의암학회, 2008.12. 119~145쪽; 이창식·안상경, 「화서학맥 유인석과 김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화서학논총』 4, 화서학회, 2010.10, 187~215쪽.

로 옳길 수도 있지만, 문제는 류인석이라는 인물의 개체가 드러나기 보다는 위정척사파에 속한 류인석이라는 몰개성적인 개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류인석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구한말 의병은 모두 이항로와 기정진을 중심으로 전개된 위정척사파의 일원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병의 뜻은 위정척사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위정척사는 학문과 구국救國을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궁극적으로 의병활동은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때나 구국에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의지로 몸을 바쳐 전쟁에 임한 것이다. 이것이 학파에 의해서 전개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배경으로 학파를 거론할 수는 있다. 사실 구한말 류인석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한 것은 위정척사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학파가 그래서 류인석도 그랬다는 식의 거론은 결국 류인석 개인에 대한 人格이 없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인격에 대한 부각이 없이는 의병활동에 대한 선양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현재 세계적인 偉人을 보면 모두 독자적인 개체로서의 인격을 부각하는 데서 그 면모가 드러난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인격이 드러날 때 진정 아름다운 선양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국활동도 사제관계도 효행도 모두 개인의 심성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류인석이 스승 이항로의 정신을 이어받아 춘추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위정척사를 기치로 의병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한 것은 결국 류인석 개인의 결단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항로의 영향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 류인석으로서의 인격을 부각해야 진정 의병활동의 참모습을 선양할 수 있고, 그 정신을 후세에 계승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류인석 자체의 인격을 중심으로 그의 구국활동의 본질을 찾아 선양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찾는 방법은 필자가 지역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썼던 이론을 도입하여 전개할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이 류인석을 찾아야, 진정한 선양사업이 주어질 수 있다는 명제 아래 글쓰기 방법과 관광

의 맥락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원형-발상-연상-마케팅’이라는 도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데, 이를 마인드맵의 원리에 따라 ‘중심어-개념어-확대어-활용’이라는 설정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류인석 관련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현황, 유연이미지 창출

그동안 류인석 관련 연구는 의병활동, 사상, 문명의식, 문학 등에 걸쳐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 수효가 수백 편에 이를 정도로 개인연구 분야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류인석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많은 것은 그의 의병활동도 대한13도의군도총재를 맡을 정도로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의암집』에 있는 그가 남긴 수많은 글 때문이다. 이 가운데 류인석을 선양하기 위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는 몇몇에 불과하다. 후속 연구를 위해 비교적 자세하게 연구사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창식이 <유인석 관련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과 전망><sup>4)</sup>이라는 논문에서 류인석 관련 역사유산의 계승과 문화콘텐츠를 언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류인석의 생애와 인성, 핵심사상과 실천의식을 추출해 내고, 관련 문화콘텐츠를 언급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전개해 왔던 류인석 관련 콘텐츠의 문제점을 파악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를 주장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다. 다만 아쉬운 것은 류인석의 성장과 핵심사상을 연구하면서, 기존의 의병 콘텐츠를 설정해 놓고 논의를 이끌다 보니, 새로운 콘텐츠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보훈콘텐츠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에 옛 것을 본받아 의를 일으켰다는 法古舉義라는

4) 이창식, 「유인석 관련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과 전망」, 『의암학연구』 5, 의암학회, 2008, 159-183쪽.

용어를 만들어서 제시했다. 이는 공자님이 말한 溫故知新과 연암 박지원이 말한 法古勑新에 대한 패러디이다. 법고거의는 류인석 사상이 기존의 유교사상을 본받아 의병으로 실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어서 나온 연구로는 이창식·최명환의 〈화서학과 학맥의 의병유산 자원과 문화콘텐츠〉<sup>5)</sup>이다. 이 연구는 류인석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화서학과를 묶어서 거론하면서 류인석을 따로 항목을 두어 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류인석 중심으로 義兵倡義가 일어났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사례를 들어 밝혔다. 기존 의병 관련 역사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 놓았다.

다음으로는 이창식·안상경의 〈화서학맥 유인석과 김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sup>6)</sup>이다. 이 연구는 화서학과를 주축으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책무 혹은 사명의 분신이라는 측면에서 류인석과 김구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인물의 궤선화와 테마투어 섹션 개발, 향음례, 강학 소재의 교육콘텐츠 연구, 화서학맥 다큐 제작과 스토리텔링 창작을 주장했다. 현 시대에 꼭 맞는 시의적절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화서학맥을 벗어나지 못한데 있다. 그래서 역시 류인석과 김구의 심성과 인격 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화서학의 일부로 나타날 뿐이다.

또 김기태의 〈문화콘텐츠로서의 제천의병 스토리 대중화 전략〉<sup>7)</sup>이다. 이 연구는 제천의병의 전반적인 개괄을 기존 연구를 통해서 정리하고, 당시 의병과 관련된 문화콘텐츠 사례를 분석했다. 첫 번째 사례고찰로는 김진명의 〈황태자비 납치 사건〉, 〈천년의 금서〉, 〈싸드 THAAD〉, 그리고 전국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다루었다. 두 번째 성공사례 분석으로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살피고, 뮤지컬 〈캣츠〉를 성공 사례로 기술

5) 이창식·최명환, 앞의 논문, 같은 곳.

6) 이창식·안상경, 앞의 논문, 같은 곳.

7) 김기태, 「문화콘텐츠로서의 제천의병 스토리 대중화 전략」, 『지역문화연구』 13,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4, 130-154쪽.

을 본 받아야 된다고 했다. 결론으로 문화콘텐츠를 위한 대중화 전략의 수립과 실행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을 강조했고, 지역 유관기관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적 예산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학주의 〈류인석 전신영정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sup>8)</sup>이다. 이 연구는 2015년에 제작한 전신영정의 활용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신영정은 초상화이기 때문에 이미지상징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이미지 상징을 멸사봉공의 실천적인 선비정신 구현으로 보고, 이에 선양사업·관광사업·공연예술사업을 중심으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마을박물관차원의 나그네 여행개발, 의병도 감성이 있는 인간이란 면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상이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류인석 관련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연구이다. 연구를 종합해 보면 류인석 관련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의견을 내었음을 볼 수 있다. 이 의견을 종합해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 류인석의 선양사업과 교육적 효과 등은 극대화 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양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안을 내었지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이 없다. 이는 달리 말해서 ‘류인석의 삶과 의병활동에 대한 이미지구축’을 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결론이다. 그가 살아생전 이렇게 했으니 그것을 해야 하고, 다른 콘텐츠와 스토리에서 그렇게 했으니 따라 하면 되고, 의병활동을 할 때 자료가 있으니 재연하고, 행사는 해야 하니 그저 크고 멋지게 하면 된다는 식의 안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현세와 후세들의 생각에 맞춰 변화하는 시대의식을 이끌어 낼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8) 이학주(2016), 앞의 논문, 같은 곳.

이들 문제를 의병이미지와 관련해 몇 가지만 지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의병교육과 의병선양에 대한 주제의식을 국가에 대한 충의 개념으로만 義를 몰고 가는 것이다. 충의 개념으로 義를 나타내는 것이 좋은 주제이기는 하지만, 왜 義를 국가에 맞춰야 하는지, 시대의식에 맞춰 선양하고 교육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신분이 군인이고 공무원이어야만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의병의 개념 속에 넣어 줘야 한다. 그냥 국가가 위기에 처했으니 총칼을 들고 나서서 적과 싸웠다는 의병교육은 문제가 있다. 국민은 모두 내 형제자매이고, 훗날 태어날 사람은 모두 나의 후손이며,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온 사람은 모두 우리 부모와 조상이라는 식의 의식 교육이 있어야 한다. 의병이 나서야 하는 당위성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현재까지 이뤄낸 의병 관련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은 당시 일어난 사건의 현상에 대한 역사만 이야기할 뿐, 왜라는 질문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국가라는 큰 틀을 이루는 당위성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의병 유적지에 가보면, 어느 집 사당에 온 듯한 인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사진과 위패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칼과 창이 놓여있고, 총과 의라는 큰 글자가 예술성 없이 써져 있을 뿐이다. 貫一約처럼 의병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잘 담고 있는 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리 의병기념관의 경우 관일약을 입구에 써 놓기는 했으나, 그것이 선양이나 교육에 얼마나 활용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의병도 인간이란 면을 심어줘야 한다.<sup>9)</sup> 의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다. 義兵과 義軍이란 글자가 주는 이미지는 전쟁과 관련이 깊다. 그 글자는 총칼로 사람을 찌르고 쏘아 죽이는 살벌한 이미지가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행해져 온 콘텐츠 역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서운 싸움 콘텐츠로만 일

<sup>9)</sup> 위의 논문, 247~8쪽 참조.

관해서는 의병콘텐츠가 성공할 수 없다. 의병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인정도 있고,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류인석의 경우는 어우 유몽인의 후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을 쓴 인물이 유몽인이다. 비록 방계이지만, 조상의 유전인자를 받았다면 유머와 재치가 누구보다도 뛰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의병도 일반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면을 심어줘야 나라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도 목숨을 걸고 외세와 싸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의병대장들이 대단한 학식을 갖춘 지식인이며 지성인이라는 면을 심어줘야 한다. 초상화는 지식인으로 나타나지만, 의병의 현장을 찍은 사진 등에서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의병들이 대단한 지식인이며 지성인이라는 사실을 선양하고 교육을 하면 의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곧 의병을 일으킨 당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不義를 보면 義로 바꾸고자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인,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백성의 녹을 받는 군인이나 벼슬아치들만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마련되는 것이다. 사실 류인석은 실천하는 지식인이며, 선비이며, 나아가 유가에서 누구나 되고 싶어 하던 군자라 할 수 있다. 이를 잘 드러내야 그 가치가 배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화서학파라는 학파 속 인물이 아닌, 개인적인 인간 류인석의 이미지를 살려야 한다. 류인석이 화서학파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화서학파의 실천덕목인 춘추대의를 위해서 위정척사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류인석 이전에 화서학파라는 포괄적인 면을 강조하다보니, 의병은 곧 화서학파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화서학파와 관련이 없는 사람도 의병에 참가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의병은 불의에 대항해 의를 지켜내고자 한 것이지, 화서학파라서 의병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화서학파를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 아닌 학파이기 때문에 선양의 대상이 모호해 질 수 있



다. 화서학파의 계통과 학문의 본질에 대한 공부 없을 경우 의병을 일으킨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런 사실은 그동안 의병 선양에 대한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약한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간단하고 짧은 지식으로도 의병을 일으킨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간단하다. 화서학파가 아닌 개인적인 인간 류인석을 내세우면 된다. ‘류인석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의를 위해 실천했다’는 간단한 명제를 떠올리게 하면 된다.

다섯째, 류인석이란 이름 석 자를 대면 떠오르는 중심어가 없다. 그냥 의병이라는 보편적인 이미지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류인석을 대표할 만한 중심어가 없다는 것은 류인석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홍길동 하면 바로 신출귀몰한 의義賊, 이순신 하면 거북선, 세종대왕 하면 한글처럼 류인석하면 뭐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중심어가 있어야 한다. ‘의병’, ‘의군도총재’ 등의 단어로 는 보편적인 의병이미지에 묻히고 만다.

이처럼 류인석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문제를 지적해 낼 수 있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문제 만이라도 해결해 나간다면, 류인석 의병이미지를 선양할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의병과 의군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유연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부드러워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려면 류인석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인간 류인석과 의병 류인석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심어를 찾는 것이다.

### 3. 류인석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중심어 발굴

류인석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

해서는 류인석 하면 떠오르는 중심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류인석 의군도총재를 말하면서 확연하게 떠오르는 단어는 ‘의병’이다. 물론 의병이란 단어는 불의에 맞서 의를 위해 싸우며, 특히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한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보다 더 훌륭한 단어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들처럼 ‘의병’이란 단어는 류인석을 대표할만한 단어로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마인드맵이라는 글쓰기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찾아보고자 한다. 원래 마인드맵(Mind map)은 생각지도라 해서 어떤 중심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단어, 기호, 그림,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감각적, 순간적으로 그려내는 표현법이다. 이것은 나무가 있다면 나무줄기, 나뭇가지, 잔가지, 나뭇잎 등으로 생각을 펼쳐가는 방식이다. 이때 나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나무줄기를 필자는 중심어라 명명한다. 달리 말해 주제어, 핵심어일 수 있다. 이 중심어를 필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발굴해서 원형(Archetype)이라 명명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sup>10)</sup> 이 논의에서는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매체개념을 활용해서 필자가 새로운 이론체계를 만들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표 1〉 구곡폭포 관광문화콘텐츠 ‘꿈’스토리텔링의 설정 과정도

구분	향토문화자원	원형 (특색)	발상 (활력)	연상 (변화)	설치마케팅
내용	구곡폭포, 구구리, 갈딱고개, 문배마을	9, ㅍ, 폭포	아주 많은 굽이 아주 많은 삶의 고비 고비마다 느끼는 원망	꿈(꿈, 끼, 피, 깡, 끈, 끈, 풀, 갈, 끝) 변화와 순환	9개의 나눔 표지판

10) 이학주,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춘천시 구곡폭포 스토리텔링사례를 통해서」, 『인문과학』 5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5, 209~237쪽.

11) 위의 논문, 223쪽.

이 표에서 보듯이 먼저 뭔가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기 위한 대상인 자원이 있어야 한다. 이 자원에서 특색이 될 만한 原型을 이끌어 낸다. 이 원형을 이끌어 내는 작업이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성공의 열쇠가 된다. 가장 중요한 작업임을 알 수 있다. 마인드맵으로 할 때 줄기에 해당하는 글쓰기의 중심어가 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아주 여러 가지의 대상을 압축하고 상징 및 비유 등도 잘 파악해야 한다. 원형 곧 중심어가 제대로 나와야 이어지는 발상과 연상과 마케팅까지 진행했을 때 원하는 작품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색을 찾아 원형이 나오면 활력을 줄 수 있는 발상이 나올 수 있다. 이 발상은 일종의 개념어에 해당한다. 개념어는 마인드맵에서는 줄기에서 뻗어나간 큰 가지에 해당한다. 개념어가 나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聯想인 확대어를 도출할 수 있다. 확대어는 큰 가지에서 뻗어나간 작은 가지이다. 다음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된다. 이때 마케팅도 시공에 맞춰서 잘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케팅은 마인드맵에서 작품의 활용이 된다. 본고에서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활용이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마인드맵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개발도



이 그림은 류인석을 대상자원으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개발도라 보면 된다. 전체적으로 봐서 자원개발법이다.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류인석을 대상으로 한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그 자원을 찾아서 특색을 연결하면 원형인 중심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면 류인석의 삶을 통해서 류인석을 대변할 수 있는 중심어를 찾아 보도록 한다. 다행히 류인석의 제자였던 李正奎가 1939년에 쓴 행장이 있어 그의 삶의 대강을 알 수 있다.<sup>12)</sup> 그에 의하면 어우당 유몽인의 조카로 부제학을 지낸 柳瀟이 가정리에 입향하면서 터를 잡게 되었다.

류인석은 아버지 柳重坤과 어머니 고령 申 씨의 슬하에서 1842년에 태어났다. 태어난 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삶을 나누다면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 전반기는 성장·정립기라 본다면 후반기는 활동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의 증손 류연창(1940~)도 이렇게 구술을 하였다.

의암은 여기서 태어나셨는데, 양자로 가셨다. 삼형제의 둘째분이다. 공부를 오십까지 했으니 학문에만 전념을 하셨다. 그러니 평생 학문만 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왜놈이 명성황후 국모를 시해를 했고, 예전 선비들은 단발령에 머리 깎는 걸 悲感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화서학파로 의암 휘하에 있는 분들이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때 의암께서 의병 대장이 되셨다. 원래가 학자시지 뭐 의병대장 이러는데 원래가 고명한 학자이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쏸갠해가니까 선비로서 어떻게 글만 읽을 수 있겠느냐고 하셔서 의병을 일으킨 것이다.<sup>13)</sup>

류인석이 삶을 바꾼 전환기가 1895년 단발령과 명성황후 시해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때를 계기로 그동안 학자로서 살아온 삶을 실천하는 선비의 하나인 의병으로 바꾼 것이다. 倡義를 한 전과 후로 삶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전반기는 류인석이 태어나서부터 1893년 그의 스승 성재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로 보면 될 것이다. 후반기는 1894~5년 우리의 의복제도를 변

12) 최상익 외역, 유인석, 『국역 의암집』 6, 의암학회, 2010, 375~415쪽. 앞으로 『의암집』 관련 내용은 모두 이곳에서 인용하며, 일일이 원문 주석을 다는 것은 생략한다.

13) 이학주, 『가정리 의병마을』, 춘천문화원, 2012, 90쪽.

경하여 서양식으로 바꾼 일명 번복령과 단발령이 시작되고, 을미사변이 터진 때부터이다. 그럼 류인석의 생애 중 전반기인 성장·정립기부터 보도록 한다.

그의 행장에 의하면, 류인석은 나면서부터 글을 좋아하였다. 곧,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어서 젓을 먹을 때에 늘 글자를 어머니 젓가슴 사이에 썼으며, 조금 자라서 겨우 서서 걸을 때에 화장실에 가서 재 [屎]에다 글자를 쓰느라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sup>14)</sup>고 했다. 류인석이 원래 학자며 선비의 기질이 있음을 나타내는 비유라 할 수 있다. 그의 증손 류연창도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증조부 류인석이 원래 고명한 학자였다고 구술을 했다. 기본적으로 류인석은 학자이며 선비의 삶을 산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이항로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성재 이후 화서학파의 학통을 잇는 과정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행장에서는 글공부를 한 후, 바로 효행의 장면이 나온다.

모부인 신씨가 종일 실을 뽑고 베를 짜느라고 허기진 기색이 있으면, 자세히 살펴보다가 반드시 콩을 구하여 볶아서 올렸다. 生家 조부의 상을 당하여서는 곡하며 슬퍼하기를 한결같이 어른처럼 하여 땅에 엎어져 땅극해 하였다. …

부친이 병환으로 앓으시며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자 강가에 가서 방황하며 고기를 잡으려 하였으나 구하지 못하였다. 마침 어부가 지나가다가 그 사연을 물어보고 기특하게 여겨 메기 한 마리를 주어서 들고 돌아와 부친께 공양하였다.<sup>15)</sup>

이처럼 류인석의 효행에 대한 얘기는 곳곳에 나온다. 어부에게 받은 메기 값은 나중에 주려 했다는 뒷얘기가 있다. 공짜로 받지 않으려는 마음도 읽을 수 있다. 류인석의 효행이 지극했다는 것은 천성이 착하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효는 생명존중을 뜻하

14) 『국역 의암집』 6, 376쪽.

15) 위와 같음.

는 행위로 화서가 류인석에게 써준 克己復禮와 같이 넓게 보아 仁에 해당한다.<sup>16)</sup>

또 류인석은 남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대단하였다.

추운 겨울에 들판을 가다가 水田에 가시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맨발로 들어가 뿔아버렸는데 오는 봄철에 쟁기질 하는 사람이 다리를 다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함께 가던 어른이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세밀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칭찬하였다.(376쪽)...

의암 선생은 매번 本生 伯氏와 같이 잠을 잤는데 하루 밤에 선생이 일어나 앉아서 한탄하면서 자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겨울 추위가 이와 같이 혹독하니, 생각건대 천하에 얼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였다.

부친의 명령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갈 시간이었다. 사람의 물결 속에 작은 아이가 굶어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의 발에 밟혔다. 급히 구원하여 음식점으로 가서 미음과 국을 먹여 살렸다.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서 주인이 없는 거지임을 알고 그대로 서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길렀다. 화서 선생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매우 훌륭한 본령성품이라고 칭찬하셨다.

마을 사람의 소가 논을 뜯어먹자, 선생은 천천히 끌려다가 시원한 곳에 매어 두었다. 소 주인은 두려워하여 끌려오지 못하자 선생은 집의 종에게 명하여 소에게 꼴을 먹여 보내주게 하였다.

또한 뜰 앞에 배가 새로 익었는데 밤에 훔치려는 사람이 있었다. 선생은 그가 놀라 나무에서 떨어질까 우려하여 문을 열어 소리를 내지 않고 다만 수편의 책을 암송하여 자지 않음을 보여 스스로 배나무에서 내려가게 하였다.<sup>17)</sup>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착한 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에 배서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다. 불쌍한 사람을 챙기고, 남이 다칠까봐 미리 마음을

16) 위와 같음. 화서 이항로(李恒老, 1792~1868)는 류인석을 처음 만났을 때, “인(仁)을 이루 다 사용할 수 없겠다.”고 하며, 극기복례란 글을 써 주며 그것의 확충을 권장하였다고 하였다.

17) 『국역 의암집』 6, 377쪽.

쓰는 사건들이다. 작지만 이미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마음속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근거들이다. 그야말로 仁愛의 표본임을 알 수 있다.

류인석은占과 느낌으로 미리 일어날 일을 아는 예지력도 뛰어나다고 하였다.

선생은 서울을 출발하여 돌아오는 길에 북악의 여러 산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임금의 운수가 강성하지 못함이 있는 듯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느껴워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 왜국과 서양의 흉악한 재앙의 대세가 장차 닥칠 天機가 자연히 동하고 있었다. 지극한 정성으로 미리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sup>18)</sup>

山岳의 형세를 보고 나라의 존망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음을 볼 때 영웅은 눈물이 많다는 말이 류인석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류인석의 예지력과 느낌이 뛰어난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심을 알지도 못하고 感通으로 눈물을 흘렸다고도 한다.<sup>19)</sup> 이후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望哭禮를 행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였다.

이처럼 류인석은 정도 많고, 눈물도 많고, 배려심도 많고, 남을 사랑할 줄도 알며, 예지력까지 갖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따지기도 하였다.<sup>20)</sup>

다음은 류인석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행동기의 삶이다. 류인석은 나이 50이 넘도록 오로지 학문에 전념하며 세상을 공부하였다. 어린 시기부터 마음이 여리고 사랑함이 대단해서 감히 의병장이 되어 싸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류인석에게는 참다운 선비정신이 있었으니, 배

18) 『국역 의암집』 6, 377-8쪽. 참고로 류인석의 아들 류해동도 명나라 돈으로 『주역』점을 잘 쳤다고 한다. 정세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점을 쳐서 미리 예견하고 알아맞혔다고 한다. 이학주, 『가정리 의병마을』, 앞의 책, 92쪽.

19) 『국역 의암집』 6, 378쪽.

20) 홍재구(洪在龜)와 유기일(柳基一)의 잘못을 따짐. 『국역 의암집』 6, 380-1쪽.

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학행일치를 시행한 것이다. 그 시초는 이미 있었지만, 그의 심기를 바꾼 것은 1894에 시작된 변복령에 있었다. 이때 류인석은 다음과 같이 결연한 말을 한다.

선생은 사람마다 변복하는 재앙이 임박하여 조석에 있음을 알고 통부 하시며 각자의 뜻을 정하라고 하시고 그 대략을 말씀하시기를 “아! 애통하다. 사천년 중화의 正脈과 이천년 孔孟의 大道와 우리나라 오백년 예禮樂의 典型과 집집마다 수십 대의 冠裳法도가 지금 끊어지게 되었다. 글을 읽는 선비 된 자가 어떻게 처해야 되겠는가? 선비가 지킬 것은 선왕의 도를 지키는 것이다.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입지 않고, 선왕의 法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선왕의 法行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지금 선왕의 법복을 바꾸니, 이것은 그 지킬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지킬 것을 잃어 버렸으니 어찌 선비가 되겠는가? 장차 복을 치거나 임금의 말고삐를 잡고 선왕의 도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선비의 의리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 이가 없는데, 죽음이 사는 것보다 영광스러움도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하였다<sup>21)</sup>.

류인석은 변복령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거론하며 변복령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 변복령이 류인석을 실천하는 선비로 바꾼 계기가 되었다. 이에 류인석은 제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달 네 군의 사우들을 급히 모아 春秋를 강론하고 향음례를 행하였다. 이때 향음주례는 어진 이를 대접하며 베푸는 일상의 의례가 아니라, 의거를 행하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류인석은 “금일의 의거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서로 함께 대항하기 위하여 이 衣冠의 모임을 베푸는 것이오.”<sup>22)</sup>라고 하였다. 곧, 변발령에 대항하기 위한 모임으로 향음례를 행한 것이다.

1895년 변발령에 대항하여 향음례를 행하고, 의관을 굳건히 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을미사변을 겪게 된다.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사건이었다.

21) 『국역 의암집』 6, 382쪽.

22) 『국역 의암집』 6, 382-3쪽.



이때 일제는 국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상복을 입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류인석은 망곡례를 행하고, 상복을 입었다. 그런 와중에 난적들에 의하여 강제로 단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우들과 處變三事를 논하게 된다.

처변삼사는 류인석이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선비가 취해야 할 3가지 실천행동을 일컫는 것이다. 이는 첫째로 擧義掃淸이라 하여 의거를 일으켜 적들을 맑게 쓸어버리는 것이요, 둘째로 去之守舊라 하여 고국을 떠나서 은거하며 옛것을 지키는 것이요, 셋째로 致命遂志라 하여 목숨을 바쳐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소청을 하겠다고 해서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해 싸웠다.<sup>23)</sup> 이때 의병을 일으킨 뜻은 춘추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존화양이에 두었다.

류인석은 의병의 규모가 커지자 의병규칙을 만들고, 일제에 대항할 구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관일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十三道義軍都總裁에 오르게 된다.

인석은 이에 貫一約을 만들었으니, 간략하게 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道義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 이 네 가지 사랑으로 마음을 먹어 하나로 그것을 꿰며, 여러 사람들도 마음을 함께 하여 하나로 그것을 꿰어 정성을 다하고 단결하면 쇠를 자를 수 있고 돌도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병규칙을 만들었으니 일의 시작을 심사숙고하고 일의 마무리를 잘 요약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에 인심이 모두 하나로 합쳐져 응하고 못사람들의 마음이 압박하여 十三道義軍都總裁라는 직임을 맡는 것을 사양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건대 미천하고 용렬한 몸으로 이러한 중임을 맡아 큰 일을 책임져야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합쳐 하나로 꿰고 여러 사람들의 책략을 합쳐 좋은 것은 사용하며,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쳐 굳세게 하며,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아 나라를 회복하고 社稷을 보존하고 道義를 유지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 후에야 그만 둘 것을 마음속으로 맹세하였습니다.<sup>24)</sup>

23) 『국역 의암집』 6, 383~413쪽.

관일약은 1909년 8월 16일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류인석이 만든 것으로, 왜 의병을 일으켜 싸워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당위성이며 행동규약이다. 곧, 愛國·愛道·愛身·愛人을 하나로 항일투쟁을 하여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구하자는 규약이다. 모두 사랑(愛)이라는 말로 나타냈다. 이는 곧 공자가 주창한 仁의 실천에 다름 아니다.

류인석의 인품을 이정규는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아! 아! 의암 선생은 위대합니다. 온화하고 선량하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몹시 슬퍼하고 강개하며, 넓으면서 법제가 있고 화합하면서도 힘쓸 리지 않고 옛것에 막히지 않고 세속에 섞이지 않으며, 사람을 대하고 남을 접촉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정을 펴서 경계하지 않고 언덕이 없어 평탄하게 즐기고 밝게 빛나니, 선생의 타고난 천품입니다. 가슴에는 도를 품고 기량을 펴서 君王·부자·군신이 각각 그 즐거움을 얻고 대소 백성들이 각각 제 자리를 얻게 하는 것은 선생의 뜻이며, 서사·육경·심경·근사록·주자대전에 힘을 써서 이미 말한 것처럼 외우고, 제자백가에 두루 통하여 옛날까지 달려가서 象數·律曆·度數까지 연구하고 탐색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으며 博文과 約禮를 둘 다하고 體用을 다 갖추는 것은 선생의 학문이다.<sup>25)</sup>

류인석은 학문에서 두루 갖추지 않음이 없고, 사람됨도 온후하고 인애하며, 주관이 뚜렷하며, 막힘이 없어 남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렸다. 이런 이미지는 이정규의 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前村貧家〉 등에서 보듯 류인석의 시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sup>26)</sup>

지금까지 류인석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를 대표할 중심어를 찾기 위해서 논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류인석은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생애를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전반기가 성장과 정립을 하기위한 시기였다면, 후반기는 전반기에 이룩한 정립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활동기라 할 수 있

24) 〈온 나라의 동포들에게 보냄〉, 『국역 의암집』 3, 506쪽.

25) 『국역 의암집』 6, 412쪽.

26) 〈전촌빈가〉, 『국역 의암집』 1, 44쪽 참조.

다. 이에 지금까지 거론한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보면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곧 어려서부터 학문과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擧義하여 활동하는 시기의 류인석은 일관된다는 것이다. 부드러우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압축하면 仁愛心性과 의리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의병이 되고 의군도총재가 되어서도 이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만든 관일약도 이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애국·애도·애신·애인이라는 관일약이 인간 류인석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류인석의 마인드맵 글쓰기의 원형이며,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할 중심어로 ‘관일약’을 선정한다. 따라서 류인석을 나타내는 중심어 관일약은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애심성과 의리실천을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중심어를 활용한 개념어와 확대어,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이제 류인석을 대표하는 중심어는 선정되었다. 아울러 중심어와 함께 개념어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는 류인석이 관일약의 행동강령으로 네 가지의 발상을 이뤘기 때문이다. 관일약이 중심어이면서 원형이 되고, 애국·애도·애신·애인이 개념어이면서 발상이 되는 것이다.

류인석은 관일약을 왜 만들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 보자.

지금 만고천하에 없던 대화를 당하여 나라는 망하고 도는 없어졌으며, 몸은 보존되지 못하고 사람들도 盡滅되었으니, 이 ‘貫一約’을 만든다. 관일약에는 네 개의 목적이 있으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도를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관일약의 요지는 四愛를 마음에 두고 하나로 이를 꿰뚫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이를 꿰뚫는 것이다. 관일약에는 실천이 있으니, 정성을 모아 쇠를 자르고 돌을 뚫는 것이다. 이미 관일약을 만들었으니, 그

목적을 다하고 그 요지를 다하며 그 실천을 지극히 하여 大禍를 면하길 기약한다.<sup>27)</sup>

국가와 백성이 大禍를 당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만들었으며, 4가지 약속을 하나로 꿰어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네 가지 개념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관일약』 서문에 의하면, 애국에 대해서는 유구한 역사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소중화의 예의를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사천 년토록 단군과 기자가 다스리던 나라요, 오백여 년 동안 聖神이 글로 다스린 나라요, 복희, 신농, 당우 이래 華脈이 깃들어 있는 곳이어서 소중화 예의의 나라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나라가 이와 같은 데 어찌 망하는 것을 보게만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8)</sup>

이처럼 애국의 중심어는 華脈이 깃들어 있는 소중화의 예의를 일컫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의 문집 곳곳에서 나타나는 바며, 화서학파의 중심사상이기도 하다. 곧 존화양이와 춘추대의가 언제나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sup>29)</sup> 이를 실행함에 공정하게 행해야 함을 말한다. 正으로 나라와 도와 사람과 자신을 사랑해야 중화와 예의가 실행되고, 公으로 해야 偏黨이 이뤄지지 않고 衆心이 하나로 꿰뚫을 수 있다고 했다.<sup>30)</sup> 愛道의 경우는 각자의 역할을 중시하는 中和를 말하고 있다.

무릇 道는 어떠한가? 하늘이 性으로 준 것, 성이 따르는 것, 中和가 만물을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여 기르는 도,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

27) <관일약약속>, 『국역 의암집』 4, 405쪽.

28) 『국역 의암집』 5, 279쪽.

29) <서약문답>, 『국역 의암집』 4, 위의 책, 387~391쪽 참고. <서약문답>에서는 의병장이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화맥을 이어 소중화를 보전하는 것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

30) 『국역 의암집』 4, 406쪽.

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지어미는 지어미답고,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친구는 서로 믿는 인류를 통치하는 이 道는 천하 사람들이 고금을 통하여 함께 말미암던 것이요, 나라는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은 이것으로 집안을 이끌고 사람은 이것으로 사람 노릇하는 도이니 도가 이와 같은데 어찌 없어지는 것을 보게만 하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게 하지 않겠는가?<sup>31)</sup>

이런 중화를 하늘이 性으로 준 것이라 했다. 하늘이 품부한 성이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는 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도에는 綱常과 仁義를 그 항목에 두었다.<sup>32)</sup>

愛身은 三才의 근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몸은 어떠한가? 三才에 들어 만물을 갖추었으니 금수와 다른 몸이다. 집과 나라와 천하를 위해 근본이 되는 몸을 닦아 위로는 수없는 조상과 부모를 하나로 완성하고 아래로는 萬으로 갈라진 자손을 열어 확장시키는 몸이다.<sup>33)</sup>

결국 부모와 자손으로 이어지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몸이 있어 집과 나라와 천하를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몸에는 善信과 법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sup>34)</sup>

愛人은 동포의 개념으로 이야기 하였다.

사람은 모두 이 몸을 몸으로 하여 함께 귀하게 되었다. 부모와 천지를 함께 해서 동포가 되어 함께 한나라에 살고 함께 君父를 이고 함께 예의를 몸에 익혔고 함께 덕업을 권장하면서 소리를 함께 하고 氣를 함께 하여 好惡를 함께 하고 환난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sup>35)</sup>

31) 『국역 의암집』 5, 279쪽.

32) 『국역 의암집』 4, 406쪽.

33) 『국역 의암집』 5, 279쪽.

34) 『국역 의암집』 4, 406쪽.

35) 『국역 의암집』 5, 279-280쪽.

한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공동체의 입장에서 일컬은 것이다. 사람에는 正大와 貴顯을 두었다.<sup>36)</sup> 여기서 귀현은 개인의 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포라는 공동체가 함께 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이 류인석이 주장한 관일약의 요체이다. 이를 마인드맵과 자원개발법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류인석을 대상자원으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이끌어낼 원형인 중심어는 관일약이 된다. 관일약을 원형으로 발상인 개념어는 애국·애도·애신·애인이 되며, 각각의 뜻은 애국=예의, 애도=중화(각자의 역할), 애신=3재본(집, 나라, 인류), 애인=동포로 요약된다. 개념어를 바탕으로 연상인 확대어는 애국에 존화양이와 춘추대의, 애도에 강상과 인의, 애신에 선신과 법도, 애인에 정대와 귀현이 해당한다.

〈그림 2〉 류인석의 관일약을 바탕으로 한 마인드맵



류인석은 관일약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公正, 空心(마음 비우기), 至誠으로 해야 하고, 仁·知·讓·信·和를 지키

36) 『국역 의암집』 4, 406쪽.

고 행해야 한다. 仁은 슬픔을 온전히 포용하는 것이고, 知는 명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하는 것, 讓은 자신을 비우고 남을 밀어주는 것, 信은 속임이 없고 진실이 있는 것, 和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공평한 것이다. 또 知·仁·勇 三德을 가지고 있어야 만고에 통하고 만사에 도달한다. 지는 이를 밝혀주고 인은 이를 체득시켜 주며, 용은 이를 성취하게 한다.<sup>37)</sup>고 했다.

이제 류인석을 대상자원으로 해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할 근거와 바탕은 마련되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를 현실에 적용시켜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할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일약을 이루는 근원이라 할 류인석의 仁愛心性和 의리실천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애심성과 의리실천은 류인석의 삶을 관통하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인애심성(+)-의리실천(-)=관일약(0)’이 될 수 있다. 곧, 류인석의 심성에 자리한 인애와 학자로서 공부한 내용만큼 의를 위해 실천해서 빼면 관일약으로 제로가 되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공식이 되는 것이다. 이는 류인석이 관일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자주독립의 실현이며, 이상국가 건설의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폈듯이 류인석을 의병 코드에만 맞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유연한 이미지와 강인한 이미지가 골고루 섞이게 해야 한다. 이는 인간 류인석과 의병 류인석의 이미지가 같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는 재미와 교훈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의 기본의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다. 흥미와 교훈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문학의 속성인데, 스토리텔링은 이에 이익을 추구하는 마케팅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훈적인 의병이미지에만 코드를 맞추어서는 곤란하다. 의병이미지 코드도 얼마든지 재미를 동반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관일약의 4가지 개념어인 애국, 애도, 애신, 애인과 그 聯想의

37) 『국역 의암집』 4, 406~408쪽.

가지를 활용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찾아보도록 하자.

첫째, 애국에 따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다. 이는 공정을 기반으로 예의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 코드이다. 다만 존화양이나 춘추대의는 현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이는 弘益人間이나 人乃天 또는 선비정신과 같은 우리 문화의식으로 바꾸어서 현 민주주의에 계승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때 의병이나 僧兵 등이 일어나 나라를 수호한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애국의 관일약을 활용하는 것이다. 관일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병행사와 선양관 건립 및 콘텐츠 설치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의병행사는 되도록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兵과 軍의 개념을 民과 樂의 개념으로 치환하여 조화롭게 섞을 필요가 있다. 가령, 선양차원에서 의병노래는 요즘 유행하는 아이들의 음악으로 바꾸기도 하고, 유머를 섞어 개그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으로 재미와 즐거움을 동반하여 선양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 흥길동처럼 신출귀몰하는 영웅 류인석으로 변화시켜서 흥미를 자아내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초·중·고교 학생들 교과서에 수준별로 게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교과서를 통해 배운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둘러보고 체험하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스토리텔링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감성자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체험에는 학생들과 관람객 수준에 맞는 유동적인 해설을 할 수 있는 해설사 양성도 필요하다. 보디랭귀지를 하고, 억양의 높낮이를 조정하고, 간단한 퍼포먼스도 행할 수 있는 연기력이 높은 해설사가 필요하다.

둘째, 愛道에 따른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다. 이는 中和에 따른 각자의 역할과 조화를 코드로 한다. 이에 강상과 인의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야 하는 필수요건이다. 윤리와 도덕이라는 말은 식상할 수 없는 초



시대적인 인간생활의 요건이다. 다만 강상과 인의를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요즘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역할극을 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역할극을 통해서 각자 그 위치에 따라 어떻게 언행을 해야 하는지를 교육할 수 있다. 인성교육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의병에 따른 상황극도 좋고, 일반적인 윤리교육에 따른 상황극도 좋다. 각자 역할을 맡겨서 그에 따른 강상과 인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역할극은 유·초·중·고·대교 모두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류인석의 성장기 중 어느 하나를 상황극으로 만들어도 좋고, 활동기에서 관일약을 만들 때 상황을 극으로 만들어서 해도 좋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연구, 학회, 표창, 학예도 좋은 애도의 선양 사업이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확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문예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낀다. 최근에 행했던<sup>38)</sup> 류인석의 일대기가 담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방송국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TV드라마나 영화로 상영할 수 있는 시나리오대본을 공모하는 것도 좋다. 이 사업은 대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짧은 시간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다. 강상과 인의의 교육을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할 수 있다.

의암상의 경우도 연구자에게만 주지 말고, 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효행을 한 사람, 류인석 의병에 대한 선양을 잘 한 사람 등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애신에 대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다. 애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과 나라와 인류라는 3재의 근본으로, 善信과 法度を 코드로 한다. 개인의 능력은 가정과 국가와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은 착하고 믿음을 줄 수 있으며, 생활상의 예법

<sup>38)</sup> 2015년 강원일보와 함께 다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행사를 하였다. 김정훈, 『의병대장 의암 류인석』,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015, 1-91쪽.

을 지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정신교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교육하면 독재이데올로기의 산물처럼 부각될 수 있다. 같은 단어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 이미지는 천차만별이다.

이런 면에서 '자기중심교육'이라는 교육법을 활용했으면 한다. 이 교육법은 필자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활용하는 수업방법이다. 가령, 글쓰기수업을 할 때 학생 각자에게 자신의 꿈을 제시하라고 한다. 같은 글쓰기이지만 어떤 글쓰기를 잘 하고 싶은지 묻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 개개인의 고충이 담긴 글쓰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싶다면, 자기소개서가 궁극적 목표인 꿈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무엇이며 이를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찾아가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다양하게 생각을 제시한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평가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한다.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바로 역지사지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知彼知己百戰不殆의 병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살아온 내력이 아니라, 그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묻는 것인지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루하게 자신이 살아온 잡다한 내력을 적지 않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신을 회사에 맞춰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그야말로 전략적인 자기소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회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이익창출을 하는 곳임으로 이익과 화합을 이루어야함을 깨닫게 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실무능력과 조직에 맞는 人性을 요구하는 곳임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중심교육법을 관일약에 맞춰서 시행해 보는 것이다. 가령, 관일약의 애신은 집과 나라와 인류의 근본이 되는 3재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3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각자 꿈을 설정해 보시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 적어보시오. 단, 선신과 법도의 정신을 빠뜨리지 말

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을 시행하면 류인석의 선양사업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학생들의 꿈도 찾게 하고 개인의 잠재능력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넷째, 애인에 대한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다. 이는 동포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正大와 貴顯을 코드로 한다. 귀현은 앞서 얘기했지만, 개인의 현달이 아니라 동포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현달을 뜻한다. 그래서 愛人, 곧 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마을공동체, 의병공동체, 민족공동체, 인류공동체 등의 차원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는 기획하기에 따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관일약을 골자로 해서 평화의 중요성을 세계만방에 드날리는 것이다. 일제의 침략과 의병의 활동, 그리고 수탈과 핍박에 따른 백성의 고통을 통해서 전쟁의 고통에 따른 실상을 각종 문화콘텐츠로 스토리텔링할 수 있다. 대상에 따라 만화, 뮤지컬, 영화, 드라마, 게임 등 뭐든 하여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얼마 전(2016)에 영화로 나온 <귀향>은 위안부에 관한 것이지만, 좋은 본보기이다.

또한 마을사람의 생활과 관련해서도 얼마든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필자가 개발하고 주장한 마을관광박물관은 아주 좋은 소재이다. 박물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노천박물관으로 마을을 활용하는 개념이다.<sup>39)</sup> 특히 류인석의 고향인 가정리의 경우는 그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미 의암기념관이 있고, 마을도 류 씨 집성촌으로 특색을 구비하고 있으며, 류숙을 비롯한 사당과 의병이야기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막국수의 발상지라는 파워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으며,<sup>40)</sup> 회다지 소리와 발가는 소리처럼 민요가 전승하고 있으며, 재궁동마을동제와 거리제 등의 민속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재궁동마을제는 향와 류중악 선

<sup>39)</sup> 이학주, 『홍천군 동면 노천리 좌운리 스토리텔링과 마을관광박물관』, 금강P&B·농촌엔티티, 2015, 1~237쪽.

<sup>40)</sup> 가정리 마을관광박물관과 막국수에 대해서는 이미 주장한 바 있다. 이학주(2016), 앞의 논문, 245~6쪽.

생이 지은 <재궁동민사축문><sup>41)</sup>이 남아 있어 가치가 높다. 6·25한국전쟁 때 가정리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하여 활동한 산악대<sup>42)</sup>는 아주 좋은 의병정신의 계승 증거이다. 마을관광박물관에는 류인석 뿐 아니라, 김경달, 류홍석, 윤희순, 류중약, 김평묵, 류영석, 류 참봉 등등의 인물과 과거와 현대의 인물도 활용할 수 있으며, 류인석의 문집에 있는 시문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마을관광박물관은 농촌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가꿀 수 있는 바탕도 된다. 관일약의 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마을사업이 될 수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류인석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고찰을 했다. 연구방법은 필자가 개발한 글쓰기 방식 신마인드맵의 원리를 활용한 선양 및 관광자원 발굴에 있었다. 연구의 초점은 류인석을 화서학과라는 범위 속에서 독립시키고, 의병과 의군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여 인간 류인석의 유연한 면을 드러내면서 의병이미지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해 낼 수 있었다.

먼저 논의를 위해서 류인석 관련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기존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많지 않았으나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제안은 류인석 선양사업에 유익하게 자리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류인석의 삶과 의병활동에 대한 이미지 구축’을 확실하게 이끌어 내지 못해서 일관된 면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의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병과 충성의 관계에 따

41) 이학주, 『가정리 의병마을』, 앞의 책, 128-9쪽.

42) 위의 책, 186-9쪽 참조.

른 주제의식의 부재, 의병도 인간이란 의식의 부재, 의병대장들이 지식인이며 지성인이란 의식의 부재, 화서학파의 일부가 아닌 개인적인 류인석에 대한 인식의 부재, 류인석을 나타내는 중심어의 부재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서 의병과 의군에만 초점이 주어져 있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 유연한 이미지로 바꿀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인석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중심어 발굴에서는 필자가 개발한 글쓰기 신마인드맵과 자원개발방법을 활용해서 중심어를 이끌어냈다. 이는 류인석의 삶을 다룬 이정규가 쓴 행장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고찰했다. 전반기는 성장·정립기라면 후반기는 활동기였다. 전반기에는 인성과 학문에 대한 공부가 주어졌다면, 후반기는 변복령과 단발령과 을미사변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싸우는 거의소청의 倡義를 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류인석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힘의 소유자였다. 곧, 인애심성과 의리실천을 하였는데, 이런 류인석의 사상은 관일약의 애국·애도·애신·애인에 녹아 있었다. 이에 중심어를 관일약으로 선정했다,

관일약이라는 중심어를 활용해서 개념어와 확대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관일약 관련 글속에 이미 개념어와 확대어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중심어 관일약, 개념어 애국의례·애도중화·애신 [3재빈·애인동포을, 그리고 확대어로 존화양이·춘추대의, 강상·인의, 선신·법도, 정대·귀현을 추출했다. 이에 인애심성과 의리실천을 바탕으로 깔고, 각각의 개념어와 확대어에 맞게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제언을 하였다. 애국의 경우는 중국적 사고를 탈피해서 우리 문화의식으로 할 필요를 역설했다. 兵과 軍을 民과 樂으로 바꾸어 아이들의 음악이나 개그로도 바꾸고, 드라마의 경우 신출귀몰 영웅 캐릭터로 바꿀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 수록해서 수준별 교육을 하고, 체험학습도 병행하자고 했다. 애도를 활용해서는 역할극을 통한 인성교육이나 교육, 연구, 학회, 표창, 학예도 하며, 특히 방송국과 연계해서 드라마 등의 시나리오공모도 좋다고 했다. 애신을 활용해서는 자기중심학습의 활용을

강조했다. 애인을 활용해서는 세계평화적인 면을 드날릴 필요가 있으며, 마을과 관련해서는 마을관광박물관 건립의 중요성을 말했다.

- 투고일 : 2016. 6. 30 / 심사완료일 : 2016. 7. 30 / 게재확정일 : 2016. 8. 17
- 주제어 : 류인석, 관일약, 선양사업, 신마인드맵,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 ❖ 참고문헌

- 김기태, 「문화콘텐츠로서의 제천의병 스토리 대중화 전략」, 『지역문화연구』 13,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4, 130~154쪽.
- 김정훈, 『의병대장 의암 류인석』, 강원미래전략연구소, 2015.
- 이창식, 「유인석 관련 문화유산의 현대적 계승과 전망」, 『의암학연구』 5, 의암학회, 2008, 159~183쪽.
- 이창식·안상경, 「화서학맥 유인석과 김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화서학논총』 4, 화서학회, 2010.10, 187~ 215쪽.
- 이창식·최명환, 「화서학과 학맥의 의병유산자원과 문화콘텐츠」, 『의암학연구』 6, 의암학회, 2008.12, 119~145쪽.
- 이학주, 『가정리 의병마을』, 춘천문화원, 2012.
- \_\_\_\_\_,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연구: 춘천시 구곡폭포 스토리텔링사례를 통해서」, 『인문과학』 57,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5, 209~237쪽.
- \_\_\_\_\_, 「류인석 전신영정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문화과 예술』 18, 숭실대학교 한국문예연구소, 2016.3, 223~253쪽.
- \_\_\_\_\_, 『홍천군 동면 노천리 좌운리 스토리텔링과 마을관광박물관』, 금강P&B, 2015, 1~237쪽.
- 최상익 외 역, 류인석, 『국역 의암집』 1·2·3·4·5·6, 의암학회, 2010.

❁ 국문요약

## 류인석 의군도총재의 의병이미지 선양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

-글쓰기 방식 新 마인드맵의 원리를 활용한 선양 및  
관광자원 발굴-

이 학 주

이 논문은 구한말 13도의군도총재 류인석(1842~1915)의 의병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스토리텔링과 문화콘텐츠의 발굴 및 활용에 그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의병들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선양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어 바람직하다. 의병선양사업은 나라가 존속하는 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가운데 13도의군도총재를 맡았던 류인석은 의병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류인석 관련 연구논저가 수백 편에 이르고, 그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서 선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류인석의 삶을 꿰뚫는 중심어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 때문에 류인석의 선양사업이 ‘의병’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속에 묻혔다. 본고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글쓰기방법 신마인드맵과 자원개발법을 활용해서 류인석 삶의 사상적 핵심과 중심어를 찾고자 하였다. 삶의 사상적 핵심은 ‘仁愛心性과 義理實踐’이며, 이를 꿰뚫는 중심어는 ‘貫一約’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중심어 관일약을 바탕으로 관일약에서 주창한 愛國·愛道·愛身·愛人を 개념어로 사용하고, 또 확대어로 존화양이·춘추대의, 강상·



인의, 선신·법도, 정대·귀현을 추출했다. 이에 인애심성과 의리실천을 바탕으로 깔고, 각각의 개념어와 확대어에 맞게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제언을 하였다.

❁ 영문요약

Storytelling & Cultural Contents to Enhance  
the Patriotic Soldier Image of Ryu In-seok  
—Enhancement and Cultivation of Tourism Resources  
Using New Principles of Mind-map—

Lee, Hak-ju

This study focused on cultivating storytelling and cultural contents to enhance the patriotic soldier image of Ryu In-seok(1842~1915).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and projects for the Patriotic Soldiers which should last forever.

Ryu In-seok stands a prominent place in the history of those patriotic soldiers which explains the existence of hundreds of studies on him and projects for enhancing his images.

But we missed a keyword of his life and proceeded a lot of projects using a routine word “Patriotic Soldier.” This study tries to search for the core idea and keyword of Ryu In-seok’s life through the new mind-map and resource development method of writing.

His core ideas are the mind of Mercy & Love and the practice of Justice and the keyword is “Common Promise.” On the basis of this keyword, there are conceptual words (Love of Country, Righteousness, Body and Human) and associated words.

This study propose to cultivate storytelling and cultural contents according to the conceptual and associated words on the base of the mind of Mercy

& Love and the practice of Justice.

Key Words : Ryu In-seok, Common Promise, Enhancement project, New mind-map, Cultural contents, Storytelling